

# ARARIO GALLERY

## videoMix

March 1, 2003 – April 30, 2003

다양성을 지닌 비디오는 이제 하나의 예술형태로서 그 위치를 인정 받게 되었다. 비디오의 전위적 잠재성은, 과거에 그러했듯이, 그 매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매체와 결합하고 과거의 고유한 영역을 뛰어넘어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방법에 있는 것이다.

왜 비디오인가, 또한 왜 지금인가?

첫 번째 이유는 비디오가 민주적인 매체라는 데에 있다. 휴대 가능하며, 사용하기 쉽고, 다른 첨단 장비들의 결합이나 좀더 전통적인 미디어가 필요로 했던 잠재된 재능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비디오는 모든 다른 매체들을 수용한다. 비디오는 사고를 소통하고 이야기를 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의 하나인 것이다.

전시의 전제는 이러한 매혹적인 매체의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다. VIDEOMIX전의 작가들은 세대를 가로지르고,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최첨단의 세련된 것에 이르는 모든 기술을 두루 사용하며, 매우 다양한 개념적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 함께 전시되어 보여짐으로써, 서로의 동질성과 차이점이 확연히 보여지게 되며 우리가 그 광대하고 복잡한 매체를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담화를 창조해 낸다. 이 전시의 모든 작가들은 강한 목소리와 독창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 of 조상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개척자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는 그의 비디오를 조각적 형태와 결합시킨다. 작품의 각각의 영역은--비디오와 조각--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에게 의지하여 하나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낸다.

**Tony Oursler**는 만들어진 조각 작품 위에 실질적으로 그의 비디오를 투사 시키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각적 요소를 취해 나아간다. 그럼으로써 그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두드러지게 새로운 양식으로 결합시켜 나간다. 그의 작품은 조각에 생명의 힘을 불어 넣어, 우리를 이러한 신비롭고, 감동적인 작품 세계에 빠지게 한다.

역시, 조각과 비디오를 결합시키는 백남준의 선례를 좇으며, **Matthew McCaslin**은 그의 작품 영역에 설치의 요소를 끌어 들인다. McCaslin은 구체적으로, 환경의 조건을 단편적인 작품의 한 부분으로 결합시키는 환경 작업을 좋아한다. 설치작업은 McCaslin에게 현 시점에서의 작업을 하게하며, 이로써 시간의 요소가 그의 작품의 주요 요소가 되어버린다. 비디오라는 것은, 시간에 가치를 두고 시간을 다루며 작업되어지는 동시에, 색채와 움직임 만들어 내기위한 회화적 방법으로도 표현되어진다.

**Jeremy Blake**의 비디오 작품들은, 대조적으로, 움직이는 회화와 같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그의 작품은 한쪽 끝점에서 다른 도착지점을 왕래하면서 나타내어지는 언어들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이야기 구조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형식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상적 형태들에서 보여지기도 한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미끄러지는 architectural sequences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디오는 그 영상의 행적 뿐 아니라 회화(미니멀, 색면추상, 그리고 재현적 회화)의 영역을 중재하며 화면들과 색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Jane and Louise Wilson**은 총체적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패턴과 형상들의 변화를 사용한다. 그의 작품 속으로 한발 들어가면, 당신은 그 작품에 둘러 싸여지게 된다. 그 움직임과 형상들은 영화 기법의 효과로 만들어진 회화를 암시하고 있는 만큼 장소와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William Wegman**은 비디오 아트 의 또 다른 개척자로 불린다. 개념적인 것에 근거하여, Wegman은 인간의 본성과 특유의 사고방식을 탐구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사용한다. 그의 작품, *Everyman*은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Wegman은 그의 신체, 그의 개, 항공기, skit 등을 전개해 나간다. 비디오는 이러한 일시적 순간들과 이야기의 절정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의 퍼포먼스가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지없이 Wegman의 유머감과 생활의 부조리성을 반영 한다.

**Douglas Gordon**은 발견을 위한 도구로써 그 자신을 사용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고있다. Wegman이 인간의 상태를 숙고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는 반면, Gordon은 우리를 좀더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 이끈다. 그의 매개체들은 감지를 관찰한다: 우리가 현실과 실존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

**Rodney Graham** 역시 인간의 상태에 관심을 가진다. Graham의 발표된 작품들은 좀 다른 색조를 띤다. 작품의 고상한 가치를 이용하면서 Graham은 그 자신을 역사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한다.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문맥들에서 보여지는 풍성함과 세심함에 매료되게 된다. 그의 이야기는 예외 없이 정확히 같은 장소에 머무르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을 언급하면서 끝이 나게 된다.

여기 작가들은 모두들 감성과 사고의 섬세한 표현으로써의 비디오의 잠재능력과 또한 비디오 매체의 놀라운 다양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At first glance, video is a medium to which we immediately relate. After all, we are exposed daily to an endless cacophony of images and sounds that come to us through television, photography, film, and advertising. Given its connection to these other modes of visual communication, it is no wonder that video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edominant and influential art forms of our day.

But this apparent accessibility does not in and of itself, make it an easy medium for artists to work with or viewers to understand. In fact, quite the opposite is true: each image and sound comes with its own embedded narrative. By its very nature, video must transcend its pictorial vocabulary and the viewers' visual and storytelling expectations--to become a work in its own right. The challenge for artists is first to acknowledge this and then transform the medium's inherent properties and associations into languages and worlds of their own.

I thought this was a particularly important time to present a show of this nature. We have grown ever more accustomed to the moving image. It reflects the constant flux in our society and the speed of global communication, of both news and ideas. Nothing is static, and we as creators and audiences understand that well.

VIDEOMIX offers a forum in which these worlds can be seen. The premise of the exhibition is to show the diversity of this fascinating medium. The artists in VIDEOMIX traverse generations, use everything from the most basic to the most sophisticated technologies, and have widely diverse conceptual ideologies. When seen together,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come strikingly apparent, thus creating a colloquy that helps us explore and understand this vast and complex medium. All of the artists in this exhibition have a strong voice and unique vision.